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47-88
<https://doi.org/10.29212/mh.2019..11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종군활동과 귀환

양영조*

1. 문제의 제기
2. 6·25전쟁 발발과 일본인 참전 논의
3.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가. 주일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참전 문제의 부각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동기와 활동
4.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와 귀환 과정
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귀환 과정
5. 맺음말

1. 문제의 제기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일본에 소재해 있던 미 극동군사령부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요청으로 수송선, 소해정, 구 해군병력, 기술자, 노무자 등을 한반도로 투입하여 미군과 유엔군의 작전에 협력하거나 전쟁을 지원하였다. 일본의 전쟁협력 사실은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 후반부터 비로소 이에 관한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몇몇 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무성 자료가 1976년부터 공개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도 외교관계 자료집이 출간되었고, 그 후 보고서의 일부와 참전자 회고록, 수기 등이 출간되면서 이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¹⁾ 그러나 이 때까지의 연구는 자료의 제한과 관심의 부족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는 2000년부터 진행되었다. 후방기지과 병참기지로서의 역할, 해상수송과 수송인력의 지원, 항만 부두노무자의 하역, 일본 특별소해대의 기뢰제거 작업 등은 물론 야마구치(山口)현 사례의 지방사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²⁾ 이들 연구를 통해 일본의 유엔군 지원

1) 한국에는 유석렬,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전쟁사』 제5권(전쟁기념사업회, 1993) ; 양영조,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육군박물관, 『학예』 제6집(육사, 1990) 등이 있으며, 미국에는 Reinhard Drifte, *Japan'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9) ; U.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Korea*, 육군본부(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육군본부, 1985)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 (1777—1991)*(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등이 있다. 일본에는 三木秀雄,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戦略」, 『防衛大學(社會科學篇)』 第51輯(防衛大學, 1960) ; 吉岡吉典, 「朝鮮戰爭と日本」, 吉岡吉典 外, 『現代朝鮮論』(頸所書房, 1966) ; 鈴木正四, 「朝鮮戰爭と現代史」, 『歴史評論』(歴史評論社, 1981) ; 前田哲男, 『自衛隊は何をしてきたのか?』(筑摩書房, 1990) ; 平間洋一, 『掃海艇派遣 - 朝鮮戰爭時の教訓』(中央公論, 1991) 등의 연구가 각각 발표되었다.

2) 南基正, 「朝鮮戰爭と日本-基地國家を中心に」, 東京大學綜合文化研究科博士學位論文, 2000 ; 大沼久雄, 「朝鮮戰爭に於ける日本人の參戰問題」, 『戰争責任研究』 第31號(2001) ; 鶴田久夫, 「占領下日本での朝鮮戰爭の後方支援」, 『防衛學研究』 第27號(2002) ; 鈴木英隆, 「朝鮮海域へ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 『戰史研究年譜』 第8號(防衛研究所, 2005) ; 庄司潤一郎, 「朝鮮戰爭と日本の對應 -山口縣を事例として-」, 『防衛研究所紀要』 第8卷 第3號(防衛研究所, 2006) ; 石丸宏藏, 「朝鮮

에 관한 다양한 역할에 관해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평가의 수준까지 논의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소재한 미 지상군 부대기지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이하 다른 노무자와 구별하기 위해 일본인 기지노무자 또는 중군노무자라고 칭함)들의 중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그 의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 몇몇 사람의 증언이나 회고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당시 미군 당국은 이 문제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고, 일본 언론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 중 일본 언론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철저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보도할 수 있었다. 일본 언론사는 기사를 전쟁에 파견할 수 없어 모든 자료를 미군 보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³⁾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미 지상군과 함께 한국전선에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활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는 주일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었던 노무자로 그 중 일부가 미 지상군과 함께 전선에서 직접 중군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제한된 지역에서 정해진 역할을 했던 노무자들과는 달리 직접 전선에서 전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였고 그 역할도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으로 이동하여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한정하여 그들의 중군 배경과 직접적 동기, 한국으로의 이동과정, 한국전선에서의 지원활동, 그리고 일본으로의 귀환

전쟁と日本の關して」, 『戰史研究年譜』 第11號(防衛研究所, 2008); 田中明, 「朝鮮戰爭에 있어서 後方支援에 관한 一考察- 仁川上陸作戰에 焦點을 두고-」 『韓日戰爭史學術會議輯』 (군사편찬연구소, 2012) 등이 발표 되었으며, 일본방위연구소 전사센터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들을 종합하여 防衛研究所, 『戰史特輯 朝鮮戰爭と日本』 (防衛研究所, 2013)를 발간하였다.

3) Richard B. Finn, *Winners in Peace, MacArthur, Yoshida, and Postwar Japan*(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92), p.261.

과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주로 유엔군사령부가 극비리에 예하 각 군단, 사단 등에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각 예하부대들이 조사결과를 보고한 기록들이다. 1950년 말 유엔군 내에서 미 지상군부대에 종군하고 있는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소재가 확인되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년 12월 31일 유엔군사령부가 극비리에 예하부대에 소재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보고서들은 본 논문에서 처음 분석 활용된 자료들이다.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최초 지시(IG 333.5, 1950.12.20일자)는 극동군사령부가 하달하였고, 일본군 수사령부가 그 명령을 근거로 각 부대에 조사협조 요청서(TWX E 33986, 1951.2.12)을 송부하였다. 그 결과 각 부대 내의 비공식적으로 속해 있던 일본인 노무자들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이들 모두는 1951년 2월 경 일본으로 소환되어 입한 경위와 역할 등에 관해 치밀한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자료의 문서 파일은 각 부대의 조사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인 노무자의 개인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또 유엔군사령부, 일본군수사와 제2군수사, 감찰조사관, 군병원 등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개인의 진술서는 거의 전 과정이 꾸밈없이 진술되어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평가된다.⁴⁾

4)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문서군 RG 338, Entry 11909, Box 46이다. UNC,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0.12-5) ; FEC, *FEC to Commander in Chief of UN*(1950.12-1951.5); Japan Logistic Command Communication Center, *Smuggling Japanese to Korea*(1951.2) ; Southwestern Command, *Southwestern Command to Japan Logistical Command*(1950.1-5) ; Hq X 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Concerning Unauthorized Entry of Japanese Nationals in UN Forces*(1951.2.6) ; Us Army, *Incoming Message*(1951.1.5) ; CG Army Eight, *CG Army Eight to CG X Corps*(1951.1-5) ; Hq Camp Mower,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1.2.23) ; *Japanese National Personal Statement*(1951.2-5) ect.

2. 6·25전쟁 발발과 일본인 참전 논의

6·25전쟁 발발로 주일 미군이 참전한 직후 북한군의 규모나 화력이 예상 외로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군 대신 일본인 부대를 파견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와 사회 사정에도 밝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에 일본인 부대를 파견하자는 주장은 가장 먼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1950년 7월 2일 관방장관 오카자키(岡崎勝男) 등이 일부의 일본인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과거 전범자인 고다마(兒玉譽士夫)는 동년 7월 20일 일본인 자원자를 한국전선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⁵⁾ 일본 최고법원장이던 타나카(田中耕太郎)는 1950년 7월 23일자 신문에 만약 유엔의 요구가 있으면 일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⁶⁾

일본정부 인사 외에도 참의원의장인 사토(佐藤尙武) 역시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도 일본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유엔군에 입대하는 것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⁷⁾ 민주당의 아시다(芦田均)는 일본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경찰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아시다는 "현재 요시다 정권은 조선전쟁이 주는 기회를 십분 이용함으로써 유엔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일본인의 참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의 장래에 매

5) 『讀賣新聞』 1950年 10月 30日字.

6) 『毎日新聞』, 1950年 7月 23日字.

7) 『毎日新聞』, 1950年 8月 5日字.

8) 『毎日新聞』, 1950年 8月 14日字.

우 중요하며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일본 여론은 “한일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사토 의장의 발언처럼 참전 반대의견을 지지하였다.⁹⁾

일본인 참전 주장은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일본의 관방장관의 참전 주장이 발표된 지 1주일 후인 1950년 7월 10일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호머(Homer Capehart)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일본인을 자원병의 형태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유엔이 일본인을 편성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참전시키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¹⁰⁾

이에 일본정부는 공개적으로 유엔의 참전을 지지하였으나, 일본인을 참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동년 7월 11일 일본 수상 요시다(吉田茂)는 유엔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본의 유엔 지원을 강조하면서 “유엔을 위한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¹¹⁾ 그는 6·25전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일본 자체도 공산주의의 위협과 무관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¹²⁾ 그러나 그는 일본이 피점령국 상황이므로 유엔 협조가 일본의 군사적 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본인을 참전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¹³⁾

일본인의 참전에 관해서는 미국의 여론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1950년 8월 12일자 사설에서 6·25전쟁에

9) GHQ SCAP, *Prefecture Press Analysis*(27 Aug 1950), MFSN-267(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번호, 이하 같음).

10) 『毎日新聞』, 1950年 7月 10日字.

11) 『毎日新聞』, 1950年 7月 12日字.

12) 『毎日新聞』, 1950年 7月 15日字.

13) 『毎日新聞』, 1950年 7月 12日字.

일본인이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일본의 지배 하에서 식민지 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일본 군인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군의 용병이 될 것이고, 또한 일본 헌법 역시 일본 재무장을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¹⁴⁾

이렇듯 일본 내외로 일본인의 참전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해지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즉, 그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일본인이 유엔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¹⁵⁾ 맥아더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법률문제보다도 오히려 일본인 참전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군사적 위기 문제였다. 주일 미군이 한반도로 모두 투입되는 상황에서 일본인마저 투입하게 된다면 일본안보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가. 주일 미 지상군의 참전과 일본인 참전 문제의 부각

6·25전쟁 개전 당시 미국은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은 미 제8군을 비롯하여 4개 보병사단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요코하마(横浜)에, 제1기병사단은 혼슈(本州) 중부 지역에, 제7보병사단이 홋카이도(北海道)에, 제24보병사단이 큐

14) *New York Times*, 12th August 1950.

15) 『毎日新聞』, 1950年 8月 10日号.

슈(九州)에, 제25보병사단이 혼슈의 남부지역에, 그리고 류큐(琉球)사령부 소속의 제29연대와 제9방공포병단이 오키나와(沖繩)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¹⁶⁾

미 지상군은 이동명령을 하달 받자 전투부대의 완전한 편성보다는 우선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미 지상군은 주일 미군이 먼저 투입되고, 이후 태평양기지인 하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본토 순으로 이루어졌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먼저 주일 미군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큐슈에 있는 제24사단을 투입하였고 이어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그리고 홋카이도에 있는 제7사단 순서로 투입했다.

이에 제24사단 가운데 제21연대 제1대대가 스미스특수임무부대(TF. Smith)로 편성되었고, 1950년 7월 1일 출발하여 그날 오후 부산 수영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이들이 한국전에 미 지상군 부대로는 최초로 참전한 부대가 되었다. 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7월 3일 대전에 도착했고, 이어 사단 주력이 일본 모지(牟支)와 사세보(佐世保)에서 각각 출발했다.¹⁷⁾ 먼저 제34연대가 7월 2일 부산에, 이어 제21연대, 제19연대가 4일 부산에 각각 도착하였다.

다음으로 혼슈 남부에 주둔하던 제25사단이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동년 7월 5일 한국 출동명령을 받은 사단은 제27연대를 제8야전포병대대와 함께 7월 10일에 투입되고, 곧이어 제24연대와 제159포병대대 및 제35연대가 각각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으로 배치되었다.¹⁸⁾

제1기병사단은 인천상륙 계획이 취소되자 7월 18일부터 요코하마에서 포항으로 상륙할 계획이었다. 사단은 7월 12일부터 요

1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p.52-54.

17) Roy K. Flint, *T.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9 July 1950*(Univ. Press of Kansas, 1988), p.274.

1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153.

코하마에서 승선하여 18일 새벽 제5, 제8기병연대가 포항 영일만에 상륙했으나, 제7기병연대는 태풍으로 인해 22일에 영일만에 상륙했다.

홋카이도에 주둔한 제7사단은 일본 주둔 미군 보병사단들이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자, 다른 사단의 병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임무를 맡은 제7사단은 8천여 명에 불과한 병력을 1만 8천 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6주간에 걸쳐 미 본토와 오키나와로부터 신병들을 보충 받았고, 부족한 병력 8천 명을 한국군 카투사 병력으로 보충하였다.¹⁹⁾ 제7사단은 인천상륙을 위해 출동할 때 제31, 제32연대 등 2개 연대만이 출동했고, 그것도 각 연대의 5천명의 병력 중 2천명이 한국군 카투사로 편성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한반도에 부대를 투입하면서 전선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적응훈련을 수행할 겨를도 없었고, 주일 미군은 당시 투입이전까지 일본을 점령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행정부대나 다름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²⁰⁾

한편 미군의 참전결정으로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자 당시 공산군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는 주장과 비판을 제기하였다. 가장 먼저 북한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일본인노무자 종군 문제를 사실보다 훨씬 부풀려 확대시키려 했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 참전’ 문제를 들고 나와 국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1950년 7월 6일 북한인민군총사령부는 “수원동쪽에서 섬멸된 적의 시체 가운데 30여명의 일본인 장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²¹⁾ 동년 10월 14일에는 북한 외무상 박헌영이 유엔총회에 북침 증거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미군이 수 백 명의 일본군을 참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²²⁾ 1950년 11월 2일 소련도 극동위원회에

19)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 Times Book, 1987), p.276.

2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USGPO, 1972), pp.165-166.

21) 『日刊建設通信』 1950年 7月 7日字, 吉岡吉田, 앞의 논문, p.77 재인용.

서 미군이 일본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공산군의 그러한 주장은 이후 계속 반복되었다.²³⁾

이어 북한은 중앙통신기자가 1951년 8월 18일 유엔군의 포로 명부 중에 일본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중 2명 야스이(安井龍文, 25세), 토오이(筒井清人, 23세)와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였다.²⁴⁾ 이 시기는 휴전협상이 개시되어 한창 휴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의 증언 내용 중 야스이의 발언은 크게 무리가 없으나, 토오이의 내용은 공산군의 선전선동을 위한 작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사이신문>은 1952년 11월 13일자에 "조선에서 전사했던 한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하라즈카(平塚重治)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다음날 같은 신문에서 동일한 경우가 또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오분현(大分縣)의 세 사람(吉原嶺文, 橋本忠二, 越智英一)도 조선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연이어 보도했다.²⁵⁾

그 후 오랫동안 이들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일본의 유엔군 협력에 관한 자료와 회고록 등이 공개되고 있을 무렵인 1976년 7월 『湖』의 취재반이 중군노무자 3명(藤岡幹二, 菊本勝敏, 富永松雄)의 증언을 받아 「조선에 '참전' 했던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소개하였다.²⁶⁾

대체로 전쟁기간 일본인 참전문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은, 미군이나 유엔군은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해 일본인 노무자의 중군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면 외교적으로 이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저하게 은폐하는 편이었고, 반면 공산군은 사실 이상으로 문제를 부각시켜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입장이었다.²⁷⁾

22) 『朝日新聞』, 1950年 10月 16日字.

23) 『朝日新聞』, 1950年 11月 14日字.

24) 『朝日新聞』, 1951年 12月 19日字.

25) 『朝日新聞』, 1952年 11月 13日字 및 14日字.

26) 本誌取材班, 「朝鮮で戦死したある日本人」, 『湖』, 1976年 7월號, pp.99-106.

27) 1992년에는 러시아 군사연구소 가브렐 코르트코프 연구원이 "경찰예비대 소속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동기와 활동

1) 종군 동기

주일 미 지상군의 한반도 투입이 결정되자, 각 사단에 소속된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일부가 미군과 동반하여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무자들이 미군을 따라 왜 종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군이 왜 그들을 동반하여 데리고 갔는지 그 직접적인 동기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소속 미군부대의 한국 이동이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은 길게는 거의 5년 동안 미군부대 기지에 고용되어 통역, 주방, 기술, 잡역 등 각종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전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그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 이들은 미군부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어찌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미군부대에서 일한다는 선망과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결정짓는 미군 상관의 요구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종군 동기는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제24사단 63포병대대 서비스중대에 소속되어 있던 타케오(Ariyoshi Takeo, 21세)의 경우, 후쿠오카(福岡)의 미군부대에서 14개월 간 주방 일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그 부대가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국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곧장 그의 상관인 미군 상사에게 한국으로 따라가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는 미군부대와 함께 1950년 7월 4일 부산에 도착하여 줄곧

의 일본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연합통신』, 1992년 10월 12일자.

생사를 같이 하였지만, 전혀 급료를 받지 않고 종군했다. 그가 전선에 있는 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미군병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약탈하여 선물한 75불이 전부였다.²⁸⁾

타케시(Matsunobu Takeshi, 20세)는 제24사단 포병연대 본부에서 2년 3개월간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고 1950년 7월 4일 자원하여 한국으로 갔다. 그는 상사로부터 하카다(博多) 캠프로 돌아갈 때 노무 장교를 만나 급료와 일자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²⁹⁾ 후미조(Saito Fumizo, 47세)는 1946년부터 제24사단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한국행을 자원하였지만 담당 상사가 반대하여 7월 8일 몰래 승선하여 부산으로 갔다고 했다. 그 역시 종군동안에 급료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부대 상사가 일본에 돌아가면 급료를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³⁰⁾ 키야마(Taruo Kiyama, 17세)는 1945년 7월에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950년 7월 23일 미군 제24사단 19연대 A 중대에 들어가 주방 일을 했으며, 부대 상사로부터 4만 엔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³¹⁾ 1946년부터 미 제24사단 기술부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타모츠(Ueno Tamotsu, 20세)는 중대 상사가 통역으로 한국에 가자고 권유했고, 중대장도 허락하여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종군도중 상사로부터 3만-4만 엔씩 세 번 받았다고 했다.³²⁾ 그것은 급료의 성격이 아니라 상사가 개인적으로 준 것이었다.

제25사단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들의 동기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25사단 24연대에 1948년 12월부터 고용되었던 태루오(Katsuki Teruo, 18세)는 미군 부대 병사들이 같이 가자고 하여 부대와 상관의 허락 없이 몰래 승선하였다고 했다.³³⁾ 또

28) Ariyoshi Takeo, Statement(1951.2.17).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29) Matsunobu Takeshi, Statement, Ibid.

30) Saito Fumizo, Statement, Ibid.

31) Taruo Kiyama, Statement, Ibid.

32) Ueno Tamotsu, Statement, Ibid.

제25사단 35연대에 1946년 7월부터 고용되었던 시게오(Kimura Shigeo, 26세)는 7월 2일 여러 장교들이 함께 가자고 하여 자원하게 되었고, 1950년 12월과 1951년 1월 두 달치의 급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³⁴⁾ 제25사단 27연대 본부중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던 히데키(Okamura Hideaki, 26세)는 일본인이 아니라 전쟁 전에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 온 한국인이었으며, 동년 7월 7일 많은 장교들이 한국어 통역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자원하였다고 했다. 그도 종군하는 동안 급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미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고 진술했다.³⁵⁾

제1기병사단의 사례도 이와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제1기병사단 82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쇼지(Imaizumi Shoji, 23세)는 중대장이 함께 가자고 하여 자원했다고 했으며, 그 중대장은 부대에서 민간인 신분인 자신과 늘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³⁶⁾ 제1기병사단 5기병연대 박격포대대에 고용되었던 만조(Honda Manzo, 36세)는 자원하여 1950년 7월 25일 포항으로 갔으며 종군하면서 잡역을 수행했다. 그의 중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만조에게 규정과 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중대 병사들이 몰래 그를 탑선시켜 데려갔다고 했다.³⁷⁾

이 문제에 관해 후에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는 사단으로부터 일본인 소재에 관한 조사를 위임 받고, 최종 보고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즉, “담당 중대장들이 일본인들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허락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그것이 위법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간 것은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했다.³⁸⁾

33) Katsuki Teruo, Statement, Ibid.

34) Kimura Shigeo, Statement, Ibid.

35) Okamura Hideaki, Statement, Ibid.

36) Imaizumi Shoji 및 그레이브 대위, Statement, Ibid.

37) Honda Manzo, Statement, Ibid.

38) 제1기병사단 감찰참모의 조사보고(1951.1.26), Ibid.

다음으로 제10군단과 제7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인 종군노무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슈지(Ono Shuji, 28세)는 제10군단 공병단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1950년 11월 27일에 미군 대령이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그와 함께 군용 항공기로 동경에서 북한 용포비행장으로 갔다고 했다. 슈지는 공병단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 받았고 주로 대령의 개인 일을 도와주었으며, 그 대령이 그에게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처를 찾아가 640달러를 받으라 했다고 진술했다.³⁹⁾ 그 대령은, 1951년 1월 8일 조사과정에서, “부대 내 일본인들의 수송, 통역, 잡역 등은 부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반면 미 군단감찰참모는 대령의 행동은 미군과 유엔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평가서를 보고했다.⁴⁰⁾

제7사단 32연대 57야포대대에 주방에 고용되어 있던 켄조(Takatsu Kenzo, 19세)는 미군 병사들이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으며 나중에는 미국도 갈 수 있다고 하여 자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⁴¹⁾ 이처럼 일본인 자원자들 중에는 아메리칸드림을 생각하면서 자원한 사람들도 몇몇 확인된다. 제7사단 52수송트럭대대에 속해 있던 다케요시(Katoda Dakayoshi, 25세)의 경우, 동경전기빌딩에서 1년간 취업해 있었고 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하역감독으로 고용되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미군 상관이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했고 그를 트럭에 숨겨 요코하마에서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그도 역시 미군부대 상사의 권유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었으나, 종군하는 동안 급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진술했다.⁴²⁾

39) Ono Shuji, Statement, Ibid.

40) 패어뱅크 대령, Statement : 제10군단 감찰실이 제10군단장에게 보고 (1951.1.8), Ibid.

41) Takatsu Kenzo, Statement, Ibid.

42) Kakoda Dakayoshi, Statement, Ibid.

같은 사단 제49야전포병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산시로(Shimokochi Sanshiro, 19세) 역시 그의 부대 대대장이 같이 가자고 권유했고 그를 따라 요코하마에서 인천으로 갔다고 했다. 그도 한국에서 급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떠나기 전에 대대장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했다.⁴³⁾ 대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미군이 일본인노무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지침도 없었고 그저 일본에서처럼 상식선에서 데리고 갔다고 했다.⁴⁴⁾ 또 제7사단 32연대 전차중대에서 7개월간 목수로 고용되어 있던 쿠마가이(Yuxi Kumagai)는 그 부대와 같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중대의 담당 상사가 허락하지 않아 몰래 승선하여 한국으로 이동한 후 그 부대와 다시 합류했다고 진술했다.⁴⁵⁾ 제7사단 17연대 D중대에 고용되었던 사토(Masao Sato, 20세)의 경우는 1950년 9월 5일 자원하여 후지(富士)캠프에서 요코하마를 거쳐 인천으로 갔으며, 출발 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일본에 돌아가면 급료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⁴⁶⁾ 카즈오(Eto Kazuo)의 경우는 제7사단 31연대 G중대와 함께 1950년 8월 24일 삿포로(札幌)를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중대 상사가 435달러를 준 적이 있으며 일본에 귀환한 후에도 그가 약속한 7개월 치의 급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했다.⁴⁷⁾

일본인 중군노무자들의 지원동기에 관해서는 제49포병대대가 제7사단사령부에 보고한 기록이 참조가 된다. 이에 의하면, 이들 일본인들은 거의 모두 잡일로 고용되었고 자원하여 한국으로 갔으며, 출발하기 전에 담당 미군 상사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으로 갈 경우 복무에 대한 미군의 보상은 없으며, 부상이나 사망 시 가족에게도

43) Shimokochi Sanshiro, Statement, Ibid.

44) 테일러 대대장이 사단 포병에게(1951.1.16), Ibid.

45) Yuxi Kumagai, Statement, Ibid.

46) Masao Sato, Statement(1951.2.23) ; JLC to CG Southwestern Command(1951.2.12), RG 338, Entry 11909, Box 46.

47) Eto Kaseo, Statement, Ibid.

일체의 보상이 없으며, 일본정부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중대장 역시 함께 종군하려는 일본인들에게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고 진술했다.⁴⁸⁾

제24, 제25, 제1기병, 제7사단 이외의 부대가운데에도 일본인의 종군동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츠네시데(Shigamitsu Tsuneshide, 12세)는 제2사단 23연대 1대대 A중대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흑인병사를 따라 아무 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따라 갔으며, 미군 대령이 급료의 의미로 104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했다.⁴⁹⁾ 수기타(Sugeichi Sugita, 23세)는 1945년 이후 미군 노무사무실을 통해 제27보급중대에 고용되었다. 그는 1950년 7월 15일 한국행을 자원하였고 중대장이 미군 상사에게 부탁하여 전차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갔다. 그는 중대장으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처를 찾아가 급료와 일자리를 요청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⁵⁰⁾ 그의 중대장은 1950년 말 미군부대 내의 일본인 소재가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도 수기타가 부대에서 대단히 신망을 얻고 있으며 부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⁵¹⁾

세이이치(Ninowa Seiichi, 32세)는 미군 제8086 세탁부대와 함께 1950년 9월 14일 중대장과 함께 요코하마를 출발하였고, 출발 전에 90일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면 월 1만 5천 엔을 준다고 약속 받았다고 했다.⁵²⁾ 쇼지(Haruyama Shoji, 12세)는 1945년 이후 제54헌병중대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 1946년 군정중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는 1948년 중대가 한국을 떠

48) 제49포병대대가 제7사단 포병연대에게(1951.1.15), Ibid.

49) Shigamitsu Tsuneshide, Statement, Ibid.

50) Sugeichi Sugita, Statement, Ibid.

51) 제27보급중대장 마르티네즈 대위 확인서(1951.2.25), Ibid.

52) 전방 통합 수송사령부의 보고(1950.12.14), Ibid.

나자,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부대에 들어갔고 그 때 전쟁이 났다고 했다.⁵³⁾ 이 경우 부대 하우스보이로 종군한 특이한 경우이지만, 당시 미군부대에는 그와 유사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엔진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야마다(Nobuichi Yamada, 26세)의 경우도 기술대대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갑자기 중대장으로부터 멀리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행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고 했다.⁵⁴⁾

이상과 같이 미군기지 내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은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군부대 내에서 주방, 세탁, 기술, 잡역,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미군이 한국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자, 스스로 자원하거나 미군의 권유에 의해 미군을 따라 한국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들의 종군 동기는 대체로 미군부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아니면 막연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하여 한국행을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종군 활동

미군 부대를 따라가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한국전선에서 미군을 도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노무자들은 미 제24사단이 한반도로 진출할 무렵인 1950년 7월 초부터 제25사단, 제1기병사단이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군 부대와 함께 들어왔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그때부터 미군부대와 함께 종군하면서 주로 취사, 세탁, 기술, 통역, 잡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간혹 북한군과 외모가 비슷하다고 하여 정찰부대와 함께 정찰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투에서

53) Haruyama Shoji, Statement, Ibid.

54) Nobuichi Yamada, Statement, Ibid.

위기에 처할 때나 혹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전투에 가담한 일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면 각 부대별로 이들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인 기지노무자들 중 한국전선에 가장 먼저 종군한 사람은 미치하루(Iwata Michiharu, 20세)였다. 그는 항공중대 하우스보이로 1950년 7월 1일 중대장과 함께 군용기에 몰래 탑승하여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그는 7월 중순 제25사단 24연대 D중대에 소속되어 종군하였으며 주로 잡역을 수행하였다.⁵⁵⁾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타케시(Matsunobu Takeshi, 28세)는 1950년 7월 4일 이후 사단 포병본부를 따라 통역 겸 기술자로 종군하였고, 대전에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직접 전투를 가담하여 북한군 2명을 사살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의 부대가 전선에서 5마일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⁵⁶⁾

같은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는 1950년 7월 19연대 G중대와 함께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지연전을 수행하던 중대와 함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처가 미 187공수연대 군 경찰을 통해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치카마우가(Chickamauga) 캠프에서 제24사단 기록과 의무일지, 관련자 증언 등을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 최종 실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안은 미군으로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를 맡은 부대는 이 사건이 한국전에서 일본인 운용에 관련하여 공표한 미군의 정책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부의 특별한 지침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안은 특별 보안이 유지되도록 통제되었다.⁵⁷⁾

55) Iwata Michiharu, Statement, Ibid.

56) Matsunobu Takeshi, Statement, Ibid.

미네후미의 실종은 엄격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 <아시아신문>은 1952년 11월 14일자에 오오분현의 주민 중 미군을 따라 갔던 다른 2명(越智英一, 橋本忠二)도 1950년 7월 미 제19연대와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여 소식이 끊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당시 실종자 부인이 일본 외무성에 남편의 소재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52년 10월 14일 극동군사령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 조사하였지만 현재 그의 소재는 알 수가 없으며, 그의 경우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권유에 의해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⁵⁸⁾ 아무튼 미네후미 실종사건은 그 제기 시점이 한창 양측 간에 휴전협상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1951년 가을 그의 처가 조사요청을 한 직후부터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타모츠(Ueno Tamotsu)는 1950년 7월 9일 부산에 도착하여 열차로 대전으로 갔고 제24사단 34연대 통역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부대 대부분 와해되자 야간 9시경 사단장 딘 장군과 함께 논에 숨어 있다가 대열을 이탈하게 되었고, 다음날 부상당해 쓰러져 있던 34연대 중대장을 만나 그를 군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부대와 종군하면서 항상 전투에 참가하여 사격전에 수행했다고 진술했다.⁵⁹⁾

이외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종군한 마스토(Yamasaki Masto), 요시오(Hirakura Yoshio), 후미쥬(Saito Fumizo) 등도 역시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아 종군하면서 잡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전전투 시에는 부대가 완전히 와해되어 직접 전투에도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⁶⁰⁾ 후미쥬의 경우는 사단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철수작전 시 개성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북한군과 사격전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7) 치카마우가 캠프가 서남부사령부에게, 실종자 건 보고(1951.11.26) :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군수사령부에게(1951.12.20), Ibid.

58) 『朝日新聞』, 1952년 11월 14日字.

59) Ueno Tamotsu, Statement, Ibid.

60) Yamasaki Masto, Hirakura Yoshio, Saito Fumizo, Statement, Ibid.

다음으로는 제1기병사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모루(Toyooka Mamoru, 20세)는 아버지가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1950년 8월 15일 제1기병사단과 함께 종군하였다. 그는 1951년 1월 일본으로 귀환한 후 특이하게도 다시 동년 2월 다시 참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하여 제24사단 19연대 D중대에 소속되어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고 다시 종군하였다. 그는 많은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적을 사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⁶¹⁾ 히데키(Okamura Hideaki, 26세) 역시 부 일본인, 모 한국인으로 제1기병사단에 소속되어 주로 폭탄제거 전문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전투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적을 사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⁶²⁾

히라츠카(Shigeji Hiratsuka)는 1950년 7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E중대에 소속되어 종군하였다가 1950년 9월 4일 낙동강 전투에서 교전 중 사망하였다. 기병사단으로부터 조사임무를 받은 감찰참모는 1951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교전 중 사망했다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다시 예하부대에 그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인명손실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각 부대의 조사결과 의무기록이나 사망기록이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다.⁶³⁾

그런데 1952년 11월 13일 아사이신문에 "조선에서 전사했던 한 일본인"이란 제목으로 히라츠카(平塚重治)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10일 그의 아들이 제1기병사단 E중대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갔다고 듣고 경시청과 법무성에 송환수속 요구를 하였는데, 10월 10일 갑자기 그를 찾아온 아들의 중대장 부부로부터 히라츠카는 상당수의 적병을 쓰러뜨리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61) Toyooka Mamoru, Statement, Ibid.

62) Okamura Hideaki, Statement, Ibid.

63) 1st Cavalry Division Inspector, Certification(1951.1.26) ; 1st Cavalry Division, Certification(1951.1.28) ; 15th Medical Inspector, Japanese Nationals evacuated through medical channels(1951.1.29), Ibid.

군 당국은 공식적인 승인 없이 밀항한 것이기 때문에, 9월 4일 전사한 자 가운데 확인할 수 없고 그의 매장지나 소지품도 알 수 없다고 했다.⁶⁴⁾ 이의 경우 미군 보고서 내용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9월 4일 낙동강전투에서 전투 중 사망하였으나 당시 미군 부대는 희생자명부 기록이나 10종 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7사단에 소속된 일본인노무자들은 인천상륙이후 북진작전과 철수작전에 참가하였다. 제7사단 32연대 G중대 소속 료조(Akanuma Ryoza)는 1950년 9월 중대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군복은 지급받았지만 소총은 지급받지 않았고 종군하는 동안 주로 잡역이나 통역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⁵⁾ 코바야시(Sakae Kobayashi, 21세)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시 제7사단 32연대 H중대의 하우스보이로 종군하였으며, 북진작전에서는 중대장과 함께 정찰을 나가 북한군을 만나 사격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대장은 만에 하나 공산군이 그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하여 즉시 후방으로 가도록 지시했으며, 그 후 중대장은 전투 중 전사했다고 진술했다.⁶⁶⁾

다케요시(Kakoda Dakayoshi, 25세)는 제7사단 제52수송대대장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 친구의 소개로 제10군단 헌병대로 가서 하우스보이로 종군하였다. 그는 군복과 소총 등을 지급받았고, 이때 헌병 소령으로부터 "너도 이제 한국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상 그의 밑에 있던 한국인 14명과 같이 경계근무도 했고 사격전에도 5~6회 정도 참가했으며, 종군 내내 미군들로부터 잘 대우받았다고 진술했다.⁶⁷⁾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이 종군도중 미군들로부터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모든 경우 비슷하게 진술되고 있다.

64) 『朝日新聞』, 1952年 11月 13日字.

65) Akanuma Ryoza, Statement, Ibid.

66) Sakae Kobayashi, Statement, Ibid : 8041st Army, Certification (1951.2.22), Ibid.

67) Kakoda Dakayoshi, Statement, Ibid.

켄조(Takatsu Kenzo, 19세)는 1950년 9월 15일 제7사단 32연대 57포병대대에 소속되어 종군하면서 주로 주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북진작전에도 동행하여 대대가 동년 11월 25일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격전에 참가했으며, 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으로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철수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다행히 한국군과 함께 철수할 수 있었다. 그는 동년 11월 30일 해병사단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후쿠오카 제118병원을 거쳐 12월 18일 오사카의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켄조의 경우는 중공군과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극동군사령부는 이미 동년 12월 20일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의 사안에 대해 특별히 비밀등급을 1급 비밀로 상향할 정도로 민간하게 처리하였다. 그의 부상이 확인됨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각 부대에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경우 비밀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본군수사령부에서는 그와 비슷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기도 했다.⁶⁸⁾

제7사단 32연대 F중대에 소속된 사우오이(Yashiaki Sauoi, 15세)는 1950년 9월 15일 군중장교를 따라 인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주로 잡역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는 요코하마에 승선하였을 때 중대로부터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았으며, 몇 차례 사격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늘 군중장교를 따라 다녔으며, 그가 서울 수복이후 제10군단으로 전출가게 가자, 자신은 중대를 따라 북진작전에 종군하여 주로 주방 일을 맡았다. 그는 함흥에서 군중장교의 추천으로 제10군단 항공부대로 이동하였다고 했다. 항공부대장에 의하면, 당시 사오우이가 한국인노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⁶⁹⁾

68) 서남부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에게(1950.12.20) ; 일본군수사령부가 극동군사령부에게(1950. 12.22) ; 극동군사령부가 일본군수사령부에게(1950.12.22) ; Takatsu Kenzo, Statement, Ibid.

제7사단장이 1951년 1월 25일 제8군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제7사단 내에 있는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비록 공식 승인절차 없이 들어왔지만, 전투가 아니라 병력장비의 수송 등 노무지원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종군하면서 미군들의 전투근무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제24, 25, 제1기병, 제7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인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에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이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타케세(Ito Takeshe, 20세)는 전쟁 이전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과 함께 한국으로 왔으나, 전쟁이 발발한 후 제24사단 21연대 C중대에 소속되어 미군 병사들과 똑같이 군복과 소총 등을 지급받고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특이하게도 7개월 동안 전선에서 공산군을 20명 정도 사살하였고 자신도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미국정부로부터 퍼플 허트(Purple Heart) 훈장을 수여 받았다고 진술했다.⁷⁰⁾ 이 훈장의 수여는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 가운데 유일한 경우로 미국정부가 그의 종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당국은 거의 모든 경우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종군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제2사단 23연대 1대대 A중대 소속되었던 츠네시데(Shigamitsu Tsuneshide)는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으나 소총을 지급받았고 북한지역에서 중공군을 만나 사격전을 전개하여 3~4명을 사살하였으며, 자신도 중공군의 사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⁷¹⁾ 제8군 보급부대에 있던 마모루(Ishibashi Mamoru, 9세)는 1950년 7월 중순 중대장을 따라 하우스보이로 한국으로 이동하였으나, 북진작전 시에는 대구에 남아 있었다. 이때 상부로부터

69) Yashiaki Sauoi, Statement, Ibid : X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1951.4.26.), Ibid.

70) Ito Takeshe, Statement, Ibid.

71) Shigamitsu Tsuneshide, Statement, Ibid.

부대 내에 일본인 하우스보이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고, 미군 장교가 그를 한국소년 10명과 함께 서울의 고아원으로 보냈다. 뒤에 그 중대장은 마모루를 입양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었다.⁷²⁾

마사오(Toda Masao, 33세)는 일본인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조선인 거류민단 출신이었다. 그는 참전을 자원하였고 1950년 9월 9일 민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규슈 아사카와캠프에 가서 다른 한국인 자원자 400여명과 2주간 훈련을 받은 다음 인천으로 상륙하였다. 이들은 인천에서 여러 미군부대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는 중장비부대에 소속되어 부평, 영등포 일대로 전투원으로 종군하였다.⁷³⁾

니와(Kimio Niwa, 20세)는 규슈대학 무역학부 1학년생으로서 미군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전을 자원한 경우였다. 그는 참전을 위해 조선 민단본부를 찾아갔고, 다른 한국인 지원자 160명과 함께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참전단의 자원은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승인한 사안이었으며, 니와는 참전을 자원한 160명 가운데 유일한 일본인이었다. 그는 1950년 10월 18일 부산으로 갔으나, 언어의 한계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한국군 제2훈련소장 최경록 장군의 하우스보이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11월 12일 귀환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근무하는 동안 다른 일본인처럼 급료는 없었다.⁷⁴⁾

이상과 같이 미 지상군에 소속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은 대체로 전선 후방에서 미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전투근무지원을 수행하였고, 주로 미군을 도와 취사, 세탁, 기술, 통역, 잡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어나 자신의 신변을 위협받았을 경우 사전에 지급된 소총으

72) 제8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에게(1951.3.31), Ibid.

73) Toda Masao, Statement, Ibid.

74) Kimio Niwa, Statement, Ibid.

로 전투에 가담하여 사격전을 수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느 조사장교의 평가처럼 미군부대의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⁷⁵⁾

4.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와 귀환 과정

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규모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가 한반도로 이동준비에 들어가자,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 중 일부가 미군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여 종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등 학계에서 미군기지 일본인 노무자의 종군 규모에 관해서는 일부 추정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당시 유엔군사령부, 극동군, 서남부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8군, 제10군단, 제24사단,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7사단, 141병원 등 군사병원 등의 각종 관련 보고서 가운데, 미 지상군과 함께 종군했던 일본인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대체적인 그 규모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다만, 이들 보고서에 언급된 명단은 한국전에 종군하였다가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만을 파악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망라하여 담고 있지는 못하다. 즉, 종군 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실종자나 사망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미군 관련보고서에 언급된 미 지상군 부대에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모두 발췌하여 정리하면

75) 조사장교가 제7사단 제32연대장에게, 조사결과 보고(1951.2.24), Ibid.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미군이 일본인의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명단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군 관련 자료는 미 국립 문서기록 및 관리청(NARA) 자료 문서군 RG 338, Entry 11909, Box 46의 각종 미 지상군 부대의 중군 일본인 노무자 관련 보고서들이다.

<중군 일본인 기지노무자 현황>

번호	성명	연령	소속	임무	입한 날짜 등
1	Akanuma Ryoxo		제7사단 32연대G중대	통역	50.9
2	Ariyoshi Takeo	21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3	Eto Kazuo		제7사단 31연대	잡역	50.9.6
4	Kimura Shigeo	25	제25사단 35연대	잡역	50.7.14
5	Hamasaki Sadao	20	제24사단 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6	Harudo Yamada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주방	50.9
7	Han Yong He	25	제24사단 19연대 G중대	통역 전투참여	50.7.4, 한국인
8	Haruyama Yoshio	13	제53헌병대	하우스보이	1946-51 체류 군정중대, KMAG
9	Haruyama Shojo				
10	Hisakaxu Nakahara		제7사단 49포병대대		
11	Hiroshi Yasuoka	22	제24사단 19연대G중대	잡역	50.7
12	Hirakura Yoshio	19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5
13	Hidechi Okada	27	제1기병사단 60탄약단	폭탄기술자 전투참여	50.8, 부상 모 한국인
14	Honda Manxo	36	제1기병사단 5연대 S중대	세탁	50.7.25

15	Igarashi Yasutaka		제7사단 7통신중대	수리공	50.9.22
16	Imazumi Shoji	23	제1기병사단 82포병대대	잡역	50.7.18
17	Inoue Junichi	20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5
18	Inoue Sadao				
19	Ishi Bashi Mamoru	9	제8군 보급부대	하우스보이	50.7
20	Ito Takeshe	20	제24사단 21연대C중대	전투참여	50.1 KMAG과 입한, 종군, 부상, Purple Heart훈장 수여
21	Iwata Michihara	20	항공중대	하우스보이	50.7.2, 김포 도착
22	Kanje Hirata	18	제7사단 49포병대대	잡역	50.9
23	Kazuku Teruo	18	제25사단 35연대A중대	잡역	50.7
24	Kanemitsu Choichiro (Kim Guang Sik)	10	항공대	하우스보이	50.9, 부 한국인
25	Katsuku Teruo	18	제25사단 35연대A중대	잡역	50.7.14
26	Karaki Kakichi	51	제24사단	이발	50.7.4
27	Kato Tokayoshi	25	제10군단 52수송대대	운전수 전투참가	50.9.25
28	Kim Sak Takasugi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잡역	50.9
29	Kimio Niwa	20	의용군 육군훈련소	잡역	50.10.18, 의용군중 유일 일본 인(공식) 한국군사단장 하우스 보이, 11.12 귀환지시
30	Kimura Shigeo	26	제25사단 35연대	잡역	50.7.14
31	Kobayashi Sakae		제7사단 32연대H중대	하우스보이	50.9
32	Matsunobu Takeshi (Mitsuyasu Ota) (Jung Sam Te)	18	제24사단 19연대1대대D	잡역 전투참여	50.7 입한, 부상 입원, 동생 Yasunori Ota 확인
33	Matsuda Ryuji		제7사단 32연대 H중대	하우스보이	50.9
34	Maekawa Norio				보호소 탈출
35	Manikawa Tatsuzo		제24사단 기술대대	기술자 전투참여	50.7.6

36	Toyo Oka Mamoru	20	제1기병사단	전투참여	50.7 입한, 귀환 후 51.2 재입한, 모 한국인, 참전자원
37	Masato Yanasaki		제24사단 63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7.4 입한
38	Matsunobu Takeshi	28	제24사단 포병대대	통역,기술자 전투참여	50.7.5 입한
39	Matsuzaki Tetsuo	27			
40	Minowa Seiichi	32	공병부대	운전	50.9.24 입한 한국외무장관 12.15 문제제기
41	Miyahara Masateru	19	제24사단 공병대대	통역	50.7.4 입한
42	Minao Hushime		제24사단		
43	Nagano Shigeo		제7사단 17연대		
44	Nobuichi Yamada	26	1기병사단 8공병대대 C중대	잡역 전투참여	50.8.20 입한, 복진전투
45	Ninowa seiichi		제8086기술단	기술자	50.9.24 입한
46	Ochi Eiichi			폭탄제거	50.7월 입한, 교포참전자원
47	Okamura Hideaki	22	제25사단 27연대	통역 전투참여	50.7.9 입한, 한국인
48	Ono Shuji	28	제10군단 공병단	하우스보이	50.11.27 입한
49	Sadro Ha Asaki				
50	Sawagashira Rokuzo		제7사단 32연대	잡역	50.9 입한
51	Sakae Nochiharu		제7사단		
52	Saito chuji		제7사단 17연대		
53	Saito Fumixo	47	야전병원	의료보조, 전투참여	50.7.8 입한. 개성전투
54	Shinokochi Sanshiro	19	제7사단 49포병대대	주방	50.9.15 입한
55	Shigamitsu Tsuneshide	12	제2사단 제23연대 1대대A중대	하우스보이 전투참여	50.12 입한, 부상 (미군 언론에 소개)
56	Shigeji Hiratsuka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E	잡역 전투참여	50.7 입한, 9.4 전투사망. 조사 완료보고(의료 및 손실보 고에 전무)
57	Sinji Sato		제7사단 17연대 중전차중대	하우스보이	50.9.29 입한

58	Songitimtask				
59	Suematso Tominago		제7사단 17연대A중대		50.9.15 입한
60	Sugeichi Sugita	23	제1기병사단 27병기중대	하우스보이	50.7.15 입한
61	Takayama Tsukuo		제7사단 32연대G중대	잡역	50.9 입한
62	Takatsu Kenzo	19	제7사단 32연대 57포병대대	잡역 전투참여	50.9 입한, 포로 탈출, 부상 50.11.30 귀환(비밀등급상향)
63	Tsukatoshi Ohara		제7사단 헌병중대	잡역	50.9.15 입한
64	Taruo Kiyama	17	제24사단 19연대 1대대A중대	주방	45.7 입한, 50.7.23 종군
65	Toda Masao (Do Jin Sun)	33	제7사단	참전자원	50.9 입한, 참전자원
66	Ueno Tamatsu		공병대대	통역 전투참여	50.7.9 입한, 대전전투 시 Dean 장군 동행
67	Uwartan Michiharu				
68	Uneo Temotsu	20			
69	Yamasaki Masao		제24사단 63부대S중대	잡역 전투참여	50.7.4 입한, 성병환자
70	Yamata Mishiharu	14	제25사단 24연대1대대D	잡역	50.7 입한
71	Yasiaki Sauoi	15	제7사단 32연대F중대	전투참여	50.9.15 입한
72	Yashio Kotahara		제24사단		
73	Yonekawa Tatsuzo		제24사단 공병대대	기술자 전투참여	50.7.7 입한
74	Yonekawa Tatsuzo				성병환자
75	Yoshiwara Minefumi		제24사단 19연대G중대	주방	50.7 입한, 대전전투시 실종, 처의 조사요청
76	Yuxi Kumagai		제7사단 32연 대 전차중대	목수	

위의 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자료에서 확인된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는 모두 76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입한 규모는 부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별로 나누어 보면 제24사단이 20명, 제25사단이 6명, 제1기병사단 7명, 제7사단 22명, 기타 부대 11명, 소속 불명 10명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 제24사단과 제7사단의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제24사단의 경우 최초로 전선으로 출동하면서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동반하였기 때문이었고, 제7사단의 경우는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력이 절대 부족하였고 그 상당부분을 한국군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을 동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24사단은 대전전투 등 지연전투를 전개하는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후방이 차단되거나 기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종이나 사망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4사단 각 예하부대들은 전선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참전하였고, 1950년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는 모든 부대가 분산된 상황에서 일본인 기지노무자도 예외 없이 모두 전투에 가담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 사단은 대전전투에서만 전체 병력 중 30%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⁷⁶⁾

그러나 당시 미군이 종군한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대한 손실보고서나 의료기록 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단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종군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4사단 19연대 G중대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의 경우⁷⁷⁾, 그의 가족이 조사요청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미

76) Willam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 Leavenworth Papers*(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s, 1985), p.6.

77) 일본군수사령부가 8162군사병원에게(1951.12.31), RG 338, Entry 11909, Box 46.

극동군사령부가 예하부대의 상황을 조사한 경우이지만, 그 이외 실종, 사망자의 경우에는 조사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귀환 과정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은 미 제24사단이 최초 참전할 때부터 인천상륙작전, 북진작전, 철수작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중공군의 제1, 제2차 공세로 전선이 대략 38선 부근에서 형성될 무렵,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12월 갑자기 극비리에 유엔군 지상군부대 내에 일본인 중군노무자가 있을 경우 즉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지시를 근거로 동년 12월 20일 그 소재파악을 위한 명령(IG 333.5)을 하달하였으며, 일본군 수사령부도 각 부대에 협조요청서(TWX E 33986)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명령과 보고서 내용가운데 제8군사령관의 1951년 1월 5일자 명령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즉,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군단, 사단 및 예하 부대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GX-295, KGP5)을 하달하였다.⁷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유엔군부대 내에 공식적인 승인 없이 일본인이 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원 집결시키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모든 지휘관은 먼저 각 부대의 상황을 조사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 공식적인 승인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라. 부대 내에 근무하는 동안 일본인의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이미 의무 계통으로 후방으로 소개되었거나 사망, 또는 전투 중 실종자 등을 파악하라. 아울러 각 지휘관은 그들을 지시된 장소로 옮기고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면담이나 토의도 금지한다. 먼저 그들에 관해 성명, 일본주소, 건강상태 등을 완전히 조사하여 사령부에 즉각 보고하라. 이 지시를 받자마자 필요한 명령을 제2군수사령부에

78) CG Army Eight, *Incoming Massage*(1951.1.5), Ibid.

보고하고, 반드시 군의 경호 하에 일본인을 동반하라. 이 조사는 1951 월 1월 15일까지 마무리하라. 제2군수사령관은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인수받아, 숙소 및 치료 등을 제공하라. 이 사안은 1급 비밀(Top Secret)이다"

즉,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부대, 미군 부대 내에 비공식적으로 동반한 일본인들을 모두 조사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즉시 그들을 집결시켜 일본으로 귀환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령부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종군 활동에 관해 전혀 언급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굳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 기지노무자 세이이치(Ninowa Seiichi)의 진술내용이 참조가 된다.

제8군사령부의 명령이 하달되기 이전인 1950년 11월 27일 세이이치가 부산에서 한국 군 경찰의 검문에 걸려 심문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군 헌병이 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외무부가 김두한 외무장관 명의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세이이치의 한국입국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즉시 그를 일본으로 귀환시키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극동군사령부는 제8군사령부에게 보낸 지시공문에 세이이치의 사안은 국제적인 복잡성에 비추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공식적인 승인 없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 문제는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⁹⁾ 이 경우가 미군 내부적으로 종군 일본인 기지노무자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사안이었다.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의 소재가 공산측에 알려지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79) 전방통합수송사령부의 보고(1950.12.15) ; 한국외무부가 미군 대사관에게 (1950.12.15) ; 극동군 사령부가 제8군사령부에게 (1950.12.20) ; 제2군수사령부가 제8군 경유, 유엔군사령부에게(1950. 12.20) ; 제8군이 제2군수사령부에게(1951.1.8), Ibid.

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이때의 전선 상황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대거 38선 이남으로 철수하고 있고, 미국 정책부서 내에서는 휴전과 현상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의 소재는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사건 직후 1950년 12월 20일경 극동군사령부는 제7사단 32연대 소속 켄조(Takatsu Kenzo)가 전선에서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그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먼저 주일 서남부사령부가 이미 그는 동년 11월 30일 일본으로 귀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일본군수사령부가 그의 사안이 매우 중요하여 비밀 등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현재 정보보고로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⁸⁰⁾

미군의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네후미(Yoshiwara Minefumi) 실종 건도 유엔군사령부에서부터 각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그 조사 이유도 그 사건이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⁸¹⁾ 미네후미 실종 건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한국전에 일본인을 참전시키지 않았다고 공표한 정책 입장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⁸²⁾ 미군 당국은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의 개인 진술을 받을 때에도, 마지막 질문 부분에는 예외 없이 '한국을 여행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 받았으며, 미군부대에서 다시 일할 생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80) 서남사가 일본군수사에게, 1950.12.20 ; 일본군수사가 극동군사에게(1950.12.22), Ibid.

81) 일본군수사령부가 8162군사병원에게(1951.12.31), Ibid.

82) 치카마우가 캠프가 서남사령부에게, 실종건 보고(1951.11.26), Ibid.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12월 유엔 지상군내 일본인 중군노무자들을 귀환시키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이에 미군 각 부대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중대에서부터 상급부대로 현황을 보고하였고, 또 사단에서 종합하여 8군사령부와 일본군수사령부로 각각 보고하였다. 각 현황보고와 아울러 이들이 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각 사령부나 부대, 병원 등에서 보고와 보안을 유지되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은 대부분 1951년 2월경까지는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그들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모두 군 병원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이례적으로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조하였다. 부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그들이 일본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군의 안내 하에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 경호요원은 반드시 그를 안전하게 호송하였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군이 이 사안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사령부에서는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군 부대기지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켄조의 경우, 부대관리자는 그가 일본에 귀환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서비스중대에 재고용되었으나 근무태만, 업무보고 미 이행, 업무불만, 업무무단이탈 등으로 재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 때문'에 그가 다시 일하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할 정도였다.⁸³⁾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일본인 기지노무자들의 중군사실이 공산 측이나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일본인 중군 기지노무자들에 대한 일련의

83) 오사카 캠프의 보고(1951.3.14), Ibid.

조치는 유엔군이 1950년 12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미 합참이나 정책부서에서는 이미 6·25전쟁을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 마무리해야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 양측이 협상을 전개할 경우, 일본인 중군 사실은 미군과 유엔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미 극동군사령부는 일본 점령통치 초기부터 일본인 노무자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그 노무자는 단순 잡역에서부터 전문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심지어 미군기지에 대한 경계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다량의 장비와 무기, 그리고 군수품을 수송 및 하역하기 위해 일본인 노무자를 한국으로 보내 운용하고 있었다. 주일 미 대사(1952-53년) 머피(Robert D. Murphy)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인의 선주와 철도전문가들이 그들에 소속된 숙련된 기술자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미군과 함께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극비의 사안이었다. 결국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 수 천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엔군의 작전은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⁸⁴⁾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주일 미군기지 내에 고용되어 있던 일본인 기지노무자 중 일부가 미군들과 함께 한국전에 종군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원하거나 미군의 권유에 의해 종군하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종군한 것이었다. 엄격하게 규정하면 이

84) 三木秀雄, 앞의 논문,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戦略」, p.141. 재인용.

들의 종군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내외로 일본인의 참전에 관한 논의들이 분분할 무렵,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일본인이 유엔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종군 동기는 미군부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또는 아니면 막연히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원하여 한국으로 갈 것을 자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본인 종군노무자는 모두 76명으로 파악되었고, 각 부대별로 미 제24사단이 20명, 제25사단이 6명, 제1기병사단 7명, 제7사단 22명, 기타 부대 11명, 소속 불명 10명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전선 상황에 따라 공산군으로부터 후방이 차단되거나 기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종이나 사망자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군이 일본인 종군노무자에 대한 손실보고서나 의료일지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일본 미군기지 내에서 활동한 형태와 유사하게 한국전선 후방에서, 때로는 전선에서 미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전투근무지원을 수행하였고, 주로 잡역이나 취사, 세탁, 기술, 운전,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어나 신변을 위협받았을 경우 사전에 지급된 소총으로 전투에도 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미군은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에게 대부분 군복과 소총을 지급하였고, 전선 상황에 따라 다수가 전투에도 가담하여 사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종군노무자인 이토의 경우는 7개월간 전선에서 적 20여 명을 사살하는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자신도 부상을 입어 미국정부로부터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들의 소재가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유엔군이 위기에 처해 있던 1950년 12월 시점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극비리에 지상군부

대 내에 일본인 종군노무자가 있을 경우 즉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미 극동군사령부는 이를 근거로 동년 12월 20일 소재파악 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의 소재가 공산측에 알려지면 미국이 국제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미국 정책부서에서 휴전과 현상 유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인 종군노무자들의 소재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 각 부대에서는 중대에서부터 상급부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기지노무자의 현황을 보고하였고, 또 이를 사단에서 종합하여 제8군사령부와 일본군수사령부로 각각 보고하였다. 이들의 귀환 과정도 각 사령부나 부대에서 철저히 관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인 종군 기지노무자들은 1951년 2월까지 대부분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원고투고일: 2019. 3. 15,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6·25전쟁, 유엔군사령부, 주일미군 군사기지, 일본기지노무자, 종군노무자, 종군동기, 종군활동, 전투근무지원, 일본귀환

<참고 문헌>

- 유석렬,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전쟁사』 제5권(전쟁기념사업회, 1993)
- 양영조,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육군박물관, 『학예』 제6집(육사, 1990)
- 三木秀雄,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戦略」, 『社會科學』 第51輯(防衛大學, 1960)
- 吉岡吉典, 「朝鮮戰爭と日本」, 吉岡吉典外, 『現代朝鮮論』(頤所書房, 1966)
- 鈴木正四, 「朝鮮戰爭と現代史」, 『歴史評論』(歴史評論社, 1981)
- 前田哲男, 『自衛隊は何をしてきたのか?』(筑摩書房, 1990)
- 平間洋一, 「掃海艇派遣 - 朝鮮戰爭時の教訓」(中央公論, 1991)
- 南基正, 「朝鮮戰爭と日本-基地國家を中心に」, 東京大學綜合文化研究科博士學位論文, 2000
- 大沼久雄, 「朝鮮戰爭に於ける日本人の參戰問題」, 『戰爭責任研究』 第31號(2001)
- 鶴田久夫, 「占領下日本での朝鮮戰爭の後方支援」, 『防衛學研究』 第27號(2002)
- 鈴木英隆, 「朝鮮海域へ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 『戦史研究年譜』 第8號(防衛研究所, 2005)
- 庄司潤一郎, 「朝鮮戰爭と日本の對應 -山口縣を事例として-」, 『防衛研究所紀要』 第8卷 第3號(防衛研究所, 2006)
- 石丸安藏, 「朝鮮戰爭と日本の關して」, 『戦史研究年譜』 第11號(防衛研究所, 2008)
- 田中明, 「朝鮮戰爭에 있어서 後方支援에 관한 一考察- 仁川上陸作戰에 焦點을 두고-」, 『韓日戰爭史學術會議輯』(군사편찬연구소, 2012)
- 防衛研究所, 『戦史特輯 朝鮮戰爭と日本』(防衛研究所, 2013)
- 『聯合通信』,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日刊建設通信』, 『湖』.
- Reinhard Drifte, *Japan'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9)
- U.S. Navy,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Korea*, 육군본부(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육군본부, 1985)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1777-1991)*(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

1953(New York : Times Book, 1987)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USGPO, 196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USGPO, 1972)

Roy K. Flint, *T.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9 July 1950*(Univ. Press of Kansas, 1988)

Richard B. Finn, *Winners in Peace, MacArthur, Yoshida, and Postwar Japan*(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92)

Willam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 Leavenworth Papers*(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s, 1985)

UNC,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0.12-5), RG 338, Entry 11909, Box 46
FEC, *FEC to Commander in Chief of UNC*(1950.12-1951.5), RG 338, Entry 11909, Box 46

Japan Logistic Command Communication Center, *Smuggling Japanese to Korea*(1951.2), RG 338, Entry 11909, Box 46

Southwestern Command, *Southwestern Command to Japan Logistical Command*(1950.1-5),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X Corps, *Report of Investigation Concerning Unauthorized Entry of Japanese Nationals in UN Forces*(1951.2.6.), RG 338, Entry 11909, Box 46

Us Army, *Incoming Massage*(1951.1.5) ; CG Army Eight, *CG Army Eight to CG X Corps*(1951.1-5),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Camp Mower, *Unauthorized Shipment to and Utiliz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Korea*(1951.2.23.)

Japanese National Personal Statement(1951.2-5), RG 338, Entry 11909, Box 46

JLC to CG Southwestern Command(1951.2.12), RG 338, Entry 11909, Box 46.

Hq Camp Mower to CG Southwestern Command, 1951.2.18, RG 338, Entry 11909, Box 46.

GHQ SCAP, *Prefecture Press Analysis*(27 Aug 1950), MFSN(군사편
찬연구소 소장 자료목록)-267.

<Abstract>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of Japanese Laborers and their repatriation in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Yang, Yong-Jo

This study is about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 in the Korean War of Japanese Laborers in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and repatriation after the war. When the US ground troops were decided to join, some of the Japanese laborers who had been employed at the US military bases moved to Korea with the US troops.

Most of them volunteered for themselves went to the South Korea following the US troops by recommendation of the US troops' officials. These were not officially organized by the US forces but went to Korea for personal reasons. Strictly speaking, their move to the South Korea was illegal. These fact is confirmed in the public statement by General MacArthur that is impossible legally for the Japanese to join the United Nations' forces.

Their motivations were analyzed as volunteering to supported US troops's, to earn money, to get a chance to go to America, or to vaguely get better opportunities. The number of laborers working at Japanese US military bases identified in the materials up to is 76. In each unit, 20 members in 24th division, 6 members in 25th division, 7 members in 1th cavalry division, 11 members in another units, and 10 members in unidentified unit were counted.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many missing persons or deaths that were not included because they were often blocked or surrendered to the rear depending on the

situation. Since the US troops did not record the loss report or obligation to the Japanese laborer at that time, no date has been confirmed so far.

They carried out the combat service support under the strict control of the US military in the rear of the Korean front, as practiced at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Japan, and helped the US military in the role of helping, cooking, washing, technical support, driving, and interpreting. However, if the troops were in crisis or threatened by their own personal identifies, it is confirmed that they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battle action with a pre-paid rifle. A Japanese laborer had been awarded Purple Hart Medal by the US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seven months, killing at least 20 enemies on the front line and wounding.

Their first existence was in December 1950 when the United Nations troops was at stake. In December 1950, the United Nations Command ordered that it should be reported immediately if there were Japanese Laborers in the United Nations ground troops. The measur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f the existence of Japanese Laborers was known to the Communist side, the United States would be stuck with international politics. The process of returning Japanese Laborers to Japan was also throughly managed by each Command or Unit. As a result, they returned to Japan in February 1951.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the Japanese Laborers, the participation, the combat service support, the returning to Japan.